

혁신역량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준에 대한 연구¹⁾

요약

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급변하는 세계경제 조류에 대응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량을 지닌 기업들을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기업들을 식별하는 기준과 그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들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혁신형 기업군을 식별하기 위해 최소한의 혁신의지와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중견기업을 정책 수혜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혁신의지 기준'과 내수 매출과 수출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기 위한 '판로개척 역량 기준'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기업혁신조사(2018)를 통해 식별한 혁신기업군의 혁신성은 비혁신기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혁신 관련 정책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며, 대부분의 정책 수요가 혁신형 기업군과 비혁신형 기업군의 차별성을 드러내지만, 일부 저해 요인은 혁신기업과 비혁신기업에서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 수요 관련 한국기업혁신조사(2018) 문항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 대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 수준에 기초하여 혁신형 기업군의 정책 수요와 관련, 구체적인 지원사업 발굴과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제시한 혁신역량별 지원 대상 선별 방안은 기존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규모별·산업별 지원과는 다소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역량별로 혁신성과 혁신 관련 정책 수요 등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 기업 역량 평가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이 글은 강민지·지민웅·신종원·김정호·박양신·신위뢰·안소현·박진·박용훈·한창용·이선민(2022),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연계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의 제3장을 부분 발췌·수정하여 작성하였다.

1. 서론

디지털전환, 탄소중립의 가속화와 같은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급망 안정, 글로벌 진출 등과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한 대응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특정 수준 이상의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와 기술 개발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가진 기업군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및 공급망 안정 등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혁신기업군을 통한 위기 극복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관련 정책을 제시해 왔

다. 그러나 해당기업군에 대한 뚜렷한 선별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업종 및 규모별로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면 혁신기업군을 선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혁신기업군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를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기업들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혁신기업군 선정 기준의 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급변하는 세계경제 조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기업들을 ‘혁신형 강소·중견기업’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기업들을 식별하는 기준과 그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들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2. 혁신형 기업의 선별 기준

본 장에서는 우리 경제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혁신형 강소기업과 혁신형 중견기업 정책 대상군을 선별할 기준으로 ‘혁신의지 기준’과 ‘판로개척 역량 기준’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혁신의지 기준은 정책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혁신의지와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중견기업을 정책수혜의 대상으로 삼고자

적용한다. 이에 더해 판로개척 역량 기준은 기업의 혁신 유인이 혁신의 경제적 성과에 의해 결정됨을 고려하여, 내수 매출과 수출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들을 판로개척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선별한다. 즉, 시장에서 우수함을 입증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축한 판로를 통해 내수 매출과 수출 등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을 판로개척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선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의지

기준과 판로개척 역량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들을 혁신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군으로 식별한다.

(1) 혁신형 강소기업군 선별 기준

혁신형 강소기업군의 고려 대상 기업군을 최소 중기업²⁾ 이상으로 한정한다.³⁾ 이는 선별 대상 기업군을 ‘국가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군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혁신의지 기준은 혁신의 성과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조직 및 연구개발인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제품혁신을 달성한 기업으로 적용한다. 연구조직 및 연구개발인력 관련 기준은 기업부설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보유 인증 여부, 중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기준인 최소한의 인적 요건(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충족, 혹은 5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의 최소 인건비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1억 5,000만 원) 충족 여부를 적용한다.

이에 더해 기존 제품과 완전히 다른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제품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제품을 출시하는 제품혁신시장 출시 여부를 혁신의지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는 단순히 공정혁신을 실현하거나 혁신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을 혁신형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혁신을 달성한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기업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판로개척 역량 기준은 기업이 혁신에 대한 성과를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기업의 성장성과 글로벌 지향성을 각각 매출액과 수출액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매출액 기준의 기업 성장성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동종 산업 중기업

2) 제조업의 중기업 최소 평균 매출액 기준은(80억 초과에서 120억 초과) 업종별로 상이하다.
3) 중기업 미만의 기업군 혹은 중기업이더라도 본연구에서 제시하는 혁신형 기업군 선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군 또한 혁신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으나, 이는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의 지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자격 또는 중소기업 혁신 관련 지원 정책을 통해 중기업 이상 성장하였고 일정 수준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군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본다.

〈표 1〉 혁신형 강소기업군 선정 기준

	선별 기준
혁신의지 기준 (선별 기준 1과 2를 모두 충족)	1. 연구조직 및 연구개발인력 관련 기준(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1) 최근 기업의 3년 평균 연구개발비 총액 1억 5,000만 원 이상 (2) 기업부설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보유(인증) (3) 최근 3년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2. 제품혁신 기업
판로개척 역량 기준 (선별 기준 매출액 혹은 수출액 하나를 충족)	1. 매출액 기준 (1)과(2)를 모두 만족 (1)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동종 산업 중기업 매출액 중위값의 3년 평균 이상 (2) 동종 산업 중기업들의 2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중기업 2. 수출액 기준(3년 평균 수출액이 55억 이상)

자료: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 부문)와 산업부 내부자료(조사 당시 시점의 중견기업 리스트)를 결합한 횡단면 자료.
주: 산업분류는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매출액 증위값의 3년 평균 이상이면서, 동종 산업 중기업들의 2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때 유사한 기업군 내에서의 성장성을 고려하기 위해 단순히 기업들의 매출 실적만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 산업 중기업들 간의 비교를 통해 규모와 업종의 편차를 최소화하였다. 글로벌 지향성의 경우 수출액 55억 원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수출지향형 기술개발 사업의 수출액 기준이 500만 달러 이상인 것을 감안, 이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2) 혁신형 중견기업군 선별 기준

본 절에서는 혁신형 중견기업의 지원 대상으로 최소한의 글로벌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군을 선별하기 위해, 3년간 수출 실적이 존재하는 중견기업군을 대상으로 혁신기업군 선별안을 제시한다. 이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래의 정책 취지를 감안할 때, 3년간 수출 실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을 정책 지원 대상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형 중견기업의 혁신의지 기준은 혁신의 성과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조직 및 연구개발인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제품혁신을 달성한 기업으로 적용하였으며, 시장 최초 제품혁신을 실현한 기업은 연구조직 및 연구개발인력 관련 기준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혁신의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다. 먼저, 연구조직 및 연구개발인력 관련 기준은 중견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 혹은 연구전담조직 설립 인증, 중견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기준인 최소한 인적 요건(연구전담요원 7인 이상)의 충족, 혹은 7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의 최소 인건비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2억 1,000만 원) 충족 여부를 적용한다. 이에 더해 혁신형 강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존 제품과 완전히 다른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제품에 비해 크게 개선된

〈표 2〉 혁신형 중견기업군 선정 기준

	선별 기준
혁신의지 기준 (선별 기준 1과 2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선별 기준 3의 기준을 충족)	1. 연구조직 및 연구개발인력 관련 기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1) 최근 기업의 3년 평균 연구개발비 총액 2억 1,000만 원 이상 (2) 기업부설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보유(인증) (3) 최근 3년간 연구전담요원 7인 이상 2. 제품혁신 기업 3. 시장 최초 제품혁신 기업
판로개척 역량 기준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이 존재하는 기업 중 매출액 기준과 수출 기준 중 하나를 충족)	1. 매출액 기준 동종 산업 중견기업들의 2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중기업 2. 수출액 기준(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1) 최근 3년간 연 수출액 2,000만 달러 이상 1회 이상 경험 (2)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 기업은 2년 평균 수출 증가율 5% 이상

자료: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 부문)와 산업부 내부자료(조사 당시 시점의 중견기업 리스트)를 결합한 횡단면 자료.

주: 산업분류는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품을 출시하는 제품혁신시장 출시 여부를 혁신의지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한편, 시장 최초로 제품혁신에 성공한 기업이면서 판로개척 역량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연구조직 및 연구개발 관련 기준과 같은 혁신의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혁신형 중견기업의 지원 대상군으로서 충분한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판로개척 역량 기준은 혁신형 강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성장성과 글로벌 지향성을 각각 매출액 기준과 수출액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기업 성장성의 경우 중기업의 식별 기준과는 다르게 규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중견기업으로서 규모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은 규모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혁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식별하여 정책 자원을 지원 및 육성하는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

업의 성장성은 동종 산업 중견기업들의 2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다.⁴⁾ 혁신형 강소기업 선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기업군 내에서의 성장성을 고려하기 위해 단순히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만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 산업 중견기업들 간 비교를 통해 규모와 업종의 편차를 최소화하였다. 이에 더해 글로벌 지향성의 경우 ① 최근 3년간 연 수출액 2,000만 달러 이상 1회 이상 경험이 있으면서 ②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 기업은 2년 평균 수출 증가율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월드클래스300사업의 글로벌전문기업 조건을 글로벌 지향성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 것이다.⁵⁾

4) 기업 규모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기준으로 준용되는 3년 평균 매출액 혹은 증가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서 동 연구에서는 활용 가능한 2년간의 변화를 통해서 식별한다.

5) 2021년 기준을 적용하였다.

3. 혁신형 강소·중견기업의 특징 및 정책 수요

본 장에서는 <표 1>과 <표 2>에 제시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정책 대상군을 본 장의 연구 자료인 한국기업혁신조사(2018)에 적용하여 식별한다. 이에 식별된 정책 대상군들의 혁신 및 판로 관련 지표의 기술통계량을 통해 혁신형 강소·중견기업의 현황과 특징을 알아본다. 또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혁신의 특성을 바탕으로 정책 수요를 도출한다.

(1) 혁신형 강소·중견기업의 현황 및 혁신 관련 지표

<표 3>은 <표 1>와 <표 2>에서 제시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의 선별 기준을 중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한 결과, 규모별 기업군 내에서의 혁신형 기업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중 중기업의 혁신형 기업군(혁신형 강소기업군)으로 선별된 기

〈표 3〉 혁신형 강소·중견기업군 비중

단위: 개, %

		비혁신	혁신	전체
중기업	관측치	1,387	259	1,646
	비중	84.26	15.74	100
중견기업	관측치	168	60	228
	비중	73.68	26.32	100
중기업+중견	관측치	1,555	319	1,874
	비중	82.98	17.02	100

자료: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 부문)와 산업부 내부자료(조사 당시 시점의 중견기업 리스트)를 결합한 횡단면 자료.
 주: 중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으로 조사 대상 기업이 응답한 결과이며, 중견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가운데 조사 당시 시점의 중견기업(산업부 내부자료)에 존재한 기업을 식별하여 중견기업으로 분류하였음(단, 중견기업 리스트를 우선적으로 분류-에 칸대 기존의 중기업이라고 응답했던 경우에도 중견기업 리스트에 존재할 경우 해당 기업은 중견기업임).

업은 전체 샘플 1,646개 기업 중 259개 기업으로 15.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견기업 중 혁신형 기업군으로 선별된 기업은 전체 샘플 228개 기업 중 60개 기업으로 26.32%로 혁신형 강소기업군의 비율을 상회함을 알 수 있다. 전체(중기업+중

견기업) 기업 중 혁신형 기업군의 비중은 17.02%를 차지하고 있다.

〈표 4〉와 〈표 5〉는 판로 관련 지표와 혁신 관련 지표의 기술통계량을 중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각각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표에서 혁신형

〈표 4〉 중기업의 판로 및 혁신 관련 지표의 기술통계량(전체 중기업 샘플과 비교)

	비혁신형 기업	혁신형 기업	중기업 전체 샘플
매출액 (2017년 기준 백만 원)	27379.0007 (46773.2780)	53482.5019*** (85601.5896)	31486.4168 (55524.2895)
수출액 (2017년 기준 백만 원)	4360.1911 (13896.4394)	14687.8263*** (34319.8914)	5985.2564 (19015.5367)
연구개발인력 비중(%)	7.3324 (11.3682)	11.5444*** (9.5994)	7.9951 (11.2114)
특허출원 여부 (더미변수)	0.2877 (0.4528)	0.6988*** (0.4596)	0.3524 (0.4779)
하도급 여부 (더미변수)	0.3403 (0.4740)	0.2278*** (0.4202)	0.3226 (0.4676)
혁신활동 총금액 (2017년 기준 백만 원)	246.1788 (1059.9151)	1656.9730*** (3296.5834)	468.1689 (1707.3503)
혁신활동 집약도 (혁신활동 총금액/매출액)	1.2176 (4.8161)	5.2767*** (13.0057)	1.8563 (6.9468)
혁신활동 수행 여부 (더미변수)	0.3648 (0.4816)	1.0000*** (0.0000)	0.4648 (0.4989)
제품혁신 실현 여부 (더미변수)	0.0807 (0.2725)	1.0000*** (0.0000)	0.2254 (0.4180)

(계속)

	비혁신형 기업	혁신형 기업	중기업 전체 샘플
공정혁신 실현 여부 (더미변수)	0.1081 (0.3107)	0.3436*** (0.4758)	0.1452 (0.3524)
조직혁신 실현 여부 (더미변수)	0.4074 (0.4915)	0.6062*** (0.4895)	0.4386 (0.4964)
마케팅혁신 실현 여부 (더미변수)	0.3057 (0.4609)	0.5328*** (0.4999)	0.3414 (0.4743)
타기관과 협력하여 혁신활동 수행 여부(더미변수)	0.0541 (0.2262)	0.2934*** (0.4562)	0.0917 (0.2887)

자료: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 부문)와 산업부 내부자료(조사 당시 시점의 중견기업 리스트)를 결합한 횡단면 자료.
 주: 1) 1~2열의 *, **, ***는 비혁신형 강소기업과 혁신형 강소기업 간 평균 격차(mean-difference)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2) 표에 제시된 수치는 해당 변수의 평균을, ()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기업군이 우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하도급 여부는 혁신형 강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비중이 비혁신형 중기업에 비해 적음을 확인하였지만, 중견기업의 경우 혁신형 기업군과 비혁신형 기업군 간 하도급 거래 비중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견기업 혁신형 기업군의 하도급 거래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견기업의 하도급

거래 기업들은 대기업의 1차 협력사 수준의 규모와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형의 기업들이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기업에 비해 혁신성에서 우위를 가질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식별된 혁신형 기업군의 판로 및 혁신 지표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혁신기업군의 판로 역량 및 혁신의지에서 비혁신기업군에 비해 우위에

〈표 5〉 중견기업의 판로 및 혁신 관련 지표의 기술통계량(전체 중견기업 샘플과 비교)

	비혁신형 기업	혁신형 기업	중견기업 전체 샘플
매출액 (2017년 기준 백만 원)	230270.1250 (491840.0735)	397651.1333** (631614.9624)	274317.7588 (535827.9933)
수출액 (2017년 기준 백만 원)	78505.1429 (269352.8100)	102444.4667 (228014.5740)	84804.9649 (258841.8047)
연구개발인력 비중(%)	8.8631 (12.5125)	17.1833*** (22.7100)	11.0526 (16.2084)
특허출원 여부 (더미변수)	0.3690 (0.4840)	0.7000*** (0.4621)	0.4561 (0.4992)
하도급 여부 (더미변수)	0.3274 (0.4707)	0.2667 (0.4459)	0.3114 (0.4641)
혁신활동 총금액 (2017년 기준 백만 원)	795.8929 (2187.2942)	6418.0667*** (12733.4731)	2275.4123 (7198.4926)
혁신활동 집약도 (혁신활동 총금액/매출액)	0.6379 (1.4775)	3.0691*** (5.3370)	1.2777 (3.1876)

(계속)

	비혁신형 기업	혁신형 기업	중견기업 전체 샘플
혁신활동 수행 여부 (더미변수)	0.4524 (0.4992)	1.0000*** (0.0000)	0.5965 (0.4917)
제품혁신 실현 여부 (더미변수)	0.1012 (0.3025)	1.0000*** (0.0000)	0.3377 (0.4740)
공정혁신 실현 여부 (더미변수)	0.1488 (0.3570)	0.4333*** (0.4997)	0.2237 (0.4176)
조직혁신 실현 여부 (더미변수)	0.4345 (0.4972)	0.6667*** (0.4754)	0.4956 (0.5011)
마케팅혁신 실현 여부 (더미변수)	0.2976 (0.4586)	0.4833*** (0.5039)	0.3465 (0.4769)
타기관과 협력하여 혁신활동 수행 여부(더미변수)	0.0893 (0.2860)	0.4500*** (0.5017)	0.1842 (0.3885)

자료: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 부문)와 산업부 내부자료(조사 당시 시점의 중견기업 리스트)를 결합한 횡단면 자료.

주: 1) 1~2열의 *, **, ***는 비혁신형 중견기업과 혁신형 중견기업 간 평균 격차(mean-difference)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2) 기타 주석의 내용은 <표 4>와 동일함.

<표 6> 중기업의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의 주요 목적별 중요도 기술 통계량(전체 중기업과 비교)

	비혁신형 기업	혁신형 기업	중기업 전체 샘플
제품 다양화	0.1269 (0.3330)	0.4324*** (0.4964)	0.1750 (0.3801)
진부해진 기존 제품/공정 대체	0.1406 (0.3477)	0.4556*** (0.4990)	0.1902 (0.3925)
신규시장 개척 또는 시장점유율 확대	0.1846 (0.3881)	0.5792*** (0.4947)	0.2467 (0.4312)
제품의 품질 개선	0.2596 (0.4385)	0.7568*** (0.4299)	0.3378 (0.4731)
제품 생산 유연성 개선	0.1781 (0.3827)	0.5058*** (0.5009)	0.2296 (0.4207)
제품 생산능력(캐파) 증대	0.1406 (0.3477)	0.4131*** (0.4933)	0.1835 (0.3872)
인건비 절감	0.1435 (0.3507)	0.2625*** (0.4409)	0.1622 (0.3688)
원재료 및 에너지비용 절감	0.1889 (0.3916)	0.3784*** (0.4859)	0.2187 (0.4135)
환경 악영향 개선	0.1521 (0.3593)	0.3282*** (0.4705)	0.1798 (0.3842)
근로자의 작업환경 또는 안전성 개선	0.1637 (0.3701)	0.3822*** (0.4869)	0.1981 (0.3987)

자료: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 부문)와 산업부 내부자료(조사 당시 시점의 중견기업 리스트)를 결합한 횡단면 자료.

주: 1) 1~2열의 *, **, ***는 비혁신형 중기업과 혁신형 중기업 간 평균 격차(mean-difference)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2) 표에 제시된 수치는 해당 변수의 평균을, ()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3) 표에 제시된 변수는 조사대상 기업이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 및 중요도에 대해 4점 척도에 통해서 응답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한 기업은 '1' 그렇지 않은 기업은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를 의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업군별로 상이한 혁신 관련 정책 수요를 도출하기 위해 식별된 혁신기업군의 혁신 관련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기업과 중견기업의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의 주요 목적별 중요도는 <표 6>과 <표 7>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중기업의 혁신형 기업군은 전체 기업의 결과에서처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혁신기업군보다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견기업 샘플의 혁신형 기업군은 인건비 절감, 원재료 및 에너지비용 절감 목적의 혁신은 비혁신기업군과 유사한 중요도로 평가하였으며, 환경 악영향 개선

과 근로자의 작업환경 또는 안전성 개선의 중요도는 비혁신기업군에 비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견기업의 혁신형 기업군은 제품 다양화, 진부해진 기존 제품/공정 대체, 신규시장 개척 또는 시장 점유율 확대, 제품의 품질 개선, 제품 생산 유연성 개선, 제품 생산능력 증대에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중견기업의 혁신기업군은 상대적으로 제품혁신(기술혁신)과 연관성이 높은 혁신 목적에 중요도를 높게 두며, 인건비 및 원감 절감 그리고 환경 개선과 같은 혁신의 중요성은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을 시사한다.

<표 7> 중견기업의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의 주요 목적별 중요도 기술통계량(전체 중견기업과 비교)

	비혁신형 기업	혁신형 기업	중견기업 전체 샘플
제품 다양화	0.1310 (0.3384)	0.2667** (0.4459)	0.1667 (0.3735)
진부해진 기존 제품/공정 대체	0.2083 (0.4073)	0.3667** (0.4860)	0.2500 (0.4340)
신규시장 개척 또는 시장점유율 확대	0.3036 (0.4612)	0.5333*** (0.5031)	0.3640 (0.4822)
제품의 품질 개선	0.3631 (0.4823)	0.6667*** (0.4754)	0.4430 (0.4978)
제품 생산 유연성 개선	0.2738 (0.4472)	0.5333*** (0.5031)	0.3421 (0.4755)
제품 생산능력(캐파) 증대	0.2619 (0.4410)	0.4500*** (0.5017)	0.3114 (0.4641)
인건비 절감	0.2262 (0.4196)	0.2333 (0.4265)	0.2281 (0.4205)
원재료 및 에너지비용 절감	0.2381 (0.4272)	0.3167 (0.4691)	0.2588 (0.4389)
환경 악영향 개선	0.1845 (0.3891)	0.3000* (0.4621)	0.2149 (0.4117)
근로자의 작업환경 또는 안전성 개선	0.2619 (0.4410)	0.3833* (0.4903)	0.2939 (0.4565)

자료: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 부문)와 산업부 내부자료(조사 당시 시점의 중견기업 리스트)를 결합한 횡단면 자료.

주: 1) 1~2열의 *, **, ***는 비혁신형 중견기업과 혁신형 중견기업 간 평균 격차(mean-difference)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2) 기타 주석의 내용은 <표 6>과 동일함.

〈표 8〉 혁신형 강소·중견기업의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의 주요 목적별
중요도 기술통계량(전체 샘플과 비교)

	비하도급	하도급	혁신기업군
제품 다양화	0.4426 (0.4977)	0.2667*** (0.4452)	0.4013 (0.4909)
진부해진 기존 제품/공정 대체	0.4795 (0.5006)	0.3067*** (0.4642)	0.4389 (0.4970)
신규시장 개척 또는 시장점유율 확대	0.6025 (0.4904)	0.4667** (0.5022)	0.5705 (0.4958)
제품의 품질 개선	0.7541 (0.4315)	0.6933 (0.4642)	0.7398 (0.4394)
제품 생산 유연성 개선	0.5369 (0.4997)	0.4267* (0.4979)	0.5110 (0.5007)
제품 생산능력(캐파) 증대	0.4262 (0.4955)	0.4000 (0.4932)	0.4201 (0.4943)
인건비 절감	0.2705 (0.4451)	0.2133 (0.4124)	0.2571 (0.4377)
원재료 및 에너지비용 절감	0.3852 (0.4877)	0.3067 (0.4642)	0.3668 (0.4827)
환경 악영향 개선	0.3238 (0.4689)	0.3200 (0.4696)	0.3229 (0.4683)
근로자의 작업환경 또는 안전성 개선	0.3811 (0.4867)	0.3867 (0.4903)	0.3824 (0.4867)

자료: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 부문)와 산업부 내부자료(조사 당시 시점의 중견기업 리스트)를 결합한 횡단면 자료.

주: 1) 1~2열의 *, **, ***는 혁신형 비하도급 강소 및 중견기업과 혁신형 하도급 강소 및 중견기업 간 평균 격차(mean-difference)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2) 기타 주석의 내용은 〈표 6〉과 동일함.

〈표 8〉은 혁신형 강소·중견기업의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의 주요 목적별 중요도를 하도급 기업과 비하도급 기업으로 나누어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 영역에서 비하도급 기업이 하도급 기업에 비해 혁신의 주요 목적별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제품 다양화, 진부해진 기존 제품/공정 대체, 제품의 생산 유연성 개선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는 맞춤형 생산에 기초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하도급 거래의 특성에 의해 제품 다양화와 같은 혁신 목적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혁신형 강소·중견기업의 정책 수요

본 절에서는 중기업과 중견기업의 정부지원제도의 유형별 중요도와 향후 규제 개선 정책 영향력 문항을 통해 혁신형 기업군의 정책 수요를 살펴본다. 〈표 9〉는 중기업 중 혁신형 기업군과 비혁신형 기업군의 정부지원제도 유형별 중요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중기업·중견기업 샘플에서와 같이 혁신형 기업군은 조세지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인증지원 등 정부 지원제도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력지원의 경우 혁신형 중기업이 비혁신형 기업에 비

〈표 9〉 중기기업의 정부지원제도 유형별 중요도 기술통계량(전체 중기기업과 비교)

	비혁신형 기업	혁신형 기업	중기업 전체 샘플
조세지원	0.1182 (0.3230)	0.1853*** (0.3893)	0.1288 (0.3351)
자금지원	0.0959 (0.2945)	0.1931*** (0.3955)	0.1112 (0.3144)
금융지원	0.1579 (0.3648)	0.1699 (0.3763)	0.1598 (0.3665)
인력지원	0.1399 (0.3470)	0.0811*** (0.2735)	0.1306 (0.3371)
기술지원	0.1002 (0.3004)	0.1931*** (0.3955)	0.1148 (0.3189)
인증지원	0.1413 (0.3485)	0.2278*** (0.4202)	0.1549 (0.3619)
구매지원	0.1370 (0.3440)	0.1429 (0.3506)	0.1379 (0.3449)

자료: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 부문)와 산업부 내부자료(조사 당시 시점의 중견기업 리스트)를 결합한 횡단면 자료.

주: 1) 1~2열의 *, **, ***는 비혁신형 중기기업과 혁신형 중기기업 간 평균 격차(mean-difference)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2) 표에 제시된 수치는 해당 변수의 평균을, ()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3) 표에 제시된 변수는 조사 대상 기업이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 및 중요도에 대해 4점 척도를 통해서 응답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한 기업은 '1' 그렇지 않은 기업은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를 의미.

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평가함이 나타났다. 이는 혁신형 강소기업이 혁신을 수행 시 인력의 투입보다 상대적으로 자금의 확보와 인증 여부를 중요하게 여김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⁶⁾

이에 더해 〈표 10〉은 중견기업 중 혁신형 기업군과 비혁신형 기업군의 정부지원제도 유형별 중요도를 제시하고 있다. 혁신형 기업군은 자금지원, 기술지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세지원과 인증지원 또한 통계적으로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혁신형 강소기업의 경우와는 반대로 혁신형 중견기업은 인력지원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기기업의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의 주요 목적별 중요도 기술통계량을 보여준 〈표 7〉에서 혁신형 강소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중요한 요인으로 본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즉 혁신형 중견기업은 혁신형 강소기업과는 달리 우수한 혁신인력을 통해 혁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에 인력지원과 같은 요인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 관련 정책 수요를 살펴본 결과 〈표 11〉과 같이 혁신형 강소기업군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 인증·시험·검사 제도의 합리화,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지원을 상대적으로 중요하

6) 중견기업군 이하에서의 구인난 속에 구직난으로 대변될 만큼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인력지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자금 및 기술력의 확보가 그만큼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중견기업의 정부지원제도 유형별 중요도 기술통계량(전체 중견기업과 비교)

	비혁신형 기업	혁신형 기업	중견기업 전체 샘플
조세지원	0.2083 (0.4073)	0.2333 (0.4265)	0.2149 (0.4117)
자금지원	0.1786 (0.3841)	0.3000** (0.4621)	0.2105 (0.4086)
금융지원	0.1845 (0.3891)	0.2667 (0.4459)	0.2061 (0.4054)
인력지원	0.1369 (0.3448)	0.2667** (0.4459)	0.1711 (0.3774)
기술지원	0.1607 (0.3684)	0.3000** (0.4621)	0.1974 (0.3989)
인증지원	0.2083 (0.4073)	0.2667 (0.4459)	0.2237 (0.4176)
구매지원	0.1310 (0.3384)	0.2000 (0.4034)	0.1491 (0.3570)

자료: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 부문)와 산업부 내부자료(조사 당시 시점의 중견기업 리스트)를 결합한 횡단면 자료.

주: 1) 1~2열의 *, **, ***는 비혁신형 중견기업과 혁신형 중견기업 간 평균 격차(mean-difference)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2) 기타 주석의 내용은 〈표 9〉와 동일함.

〈표 11〉 중기기업의 향후 규제 개선 정책 영향력 기술통계량(전체 중기기업과 비교)

	비혁신형 기업	혁신형 기업	중기기업 전체 샘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	0.0591 (0.2359)	0.0772 (0.2675)	0.0620 (0.2412)
한시적 규제 유예 및 완화	0.0916 (0.2885)	0.1236 (0.3297)	0.0966 (0.2955)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충돌 문제 해소	0.1637 (0.3701)	0.1815 (0.3862)	0.1665 (0.3726)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완화	0.1485 (0.3557)	0.1931* (0.3955)	0.1555 (0.3625)
인증·시험·검사 제도 합리화	0.2574 (0.4374)	0.3514*** (0.4783)	0.2722 (0.4452)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0.2487 (0.4324)	0.3243** (0.4690)	0.2606 (0.4391)

자료: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 부문)와 산업부 내부자료(조사 당시 시점의 중견기업 리스트)를 결합한 횡단면 자료.

주: 1) 1~2열의 *, **, ***는 비혁신형 중기기업과 혁신형 중기기업 간 평균 격차(mean-difference)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2) 표에 제시된 수치는 해당 변수의 평균을, ()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3) 표에 제시된 변수는 조사 대상 기업이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 관련 정책 가운데 향후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력에 대해 4점 척도를 통해서 응답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한 기업은 '1' 그렇지 않은 기업은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를 의미.

〈표 12〉 중견기업의 향후 규제 개선 정책 영향력 기술통계량(전체 중견기업과 비교)

	비혁신형 기업	혁신형 기업	중견기업 전체 샘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	0.0595 (0.2373)	0.0500 (0.2198)	0.0570 (0.2324)
한시적 규제 유예 및 완화	0.0774 (0.2680)	0.1167 (0.3237)	0.0877 (0.2835)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충돌 문제 해소	0.1250 (0.3317)	0.1167 (0.3237)	0.1228 (0.3289)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완화	0.1250 (0.3317)	0.1500 (0.3601)	0.1316 (0.3388)
인증·시험·검사 제도 합리화	0.1964 (0.3985)	0.3167* (0.4691)	0.2281 (0.4205)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0.1786 (0.3841)	0.2500 (0.4367)	0.1974 (0.3989)

자료: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 부문)와 산업부 내부자료(조사 당시 시점의 중견기업 리스트)를 결합한 횡단면 자료.
 주: 1) 1~2열의 *, **, ***는 비혁신형 중견기업과 혁신형 중견기업 간 평균 격차(mean-difference)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2) 기타 주석의 내용은 〈표 11〉과 동일함.

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12〉와 같이 혁신형 중견기업의 경우 인증·시험·검사 제도 합리화만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규제 관련 정책 수요로 드러났다. 특히 혁신형 중견기업의 모든 항

목의 지표들이 혁신형 강소기업에 비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혁신형 중견기업은 혁신형 강소기업에 비해 규제 요인의 정책 수요를 상대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것을 시사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혁신의지 요인과 판로개척 역량 요인으로 식별한 혁신형 기업군을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 고려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규모별·산업별 지원과는 다소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식별된 혁신형 기업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먼저, 식별된 혁신기업군의 경

제적 성과 및 혁신 관련한 대부분의 지표는 비혁신형 기업군에 비해서 우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혁신형 강소기업과 혁신형 중견기업의 각 규모별 기업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규모별 기업군 내에서 혁신형 강소기업과 혁신형 중견기업의 상대적 혁신역량의 우위는 유사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혁신형 기업군 전체 샘플은 혁신 목적의

중요도를 묻는 문항의 모든 항목에서 비혁신형 기업군보다 중요도를 높게 평가함이 드러났다. 그러나 혁신형 중견기업은 인건비 절감이나 원재료 비용 절감과 같은 항목의 경우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고 대부분 제품혁신 관련 항목만의 중요도만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혁신형 중견기업의 혁신은 비용 절감이 아닌 새로운 제품 출시나 제품의 현저한 개선에 목적을 두는 것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즉, 혁신형 중견기업과 혁신형 강소기업 혁신의 목적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혁신활동 저해 요인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항목에서 비혁신기업군이 저해 요인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잠재적 혁신기업군으로 성장하기 위한 저해 요인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내부자금 부족, 혁신을 위한 우수 인력 부족,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혁신 도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의 부재 항목에서는 혁신기업이 비혁신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저해 요인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혁신기업군 대부분은 혁신 수행 시 자금, 인력, 그리고 기술에 대한 자원의 한계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해 요인이 정책 지원의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정부정책의 필요성의 경우 혁신형 강소기업은 조세지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인증지원의 정부 지원제도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력지원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평가하였다. 한편, 혁신형 중견기업은 자금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

였다. 즉, 혁신형 중견기업은 혁신형 강소기업에 비해 인력 관련 지원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규제 관련 정책 수요를 살펴본 결과 혁신형 강소기업군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완화, 인증·시험·검사 제도 합리화,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지원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혁신형 중견기업의 경우 인증·시험·검사 제도 합리화만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규제 관련 정책 수요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형 중견기업의 모든 항목의 지표들이 혁신형 강소기업에 비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혁신형 중견기업은 혁신형 강소기업에 비해 규제 관련 정책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혁신형 기업군 중 하도급 기업과 비하도급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 혁신형 기업으로 선별된 기업군 내에서는 하도급 기업과 비하도급 기업 간의 경제적 성과 및 혁신 관련 기술 통계량은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하도급 기업이 하도급 기업에 비해 혁신의 주요 목적별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제품 다양화, 진부해진 기존 제품/공정 대체, 제품의 생산 유연성 개선 영역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맞춤형 생산에 기초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하도급 거래의 특징으로 인해, 제품의 다양화와 같은 혁신 목적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기업혁신조사를 통해 식별한 혁신기업군의 혁신성은 비혁신기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혁신 관련 정책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며, 대부분의 정책 수요가 혁신

형 기업군과 비혁신형 기업군의 차별성을 드러내지만, 일부 저해 요인은 혁신기업과 비혁신 기업에서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논의한 한국기업혁신조사(2018)의 문항의 한계로 인해, 도출된 정책 수요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대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 수준에 기초하여 혁신형 기업군의 정책 수요와 관련, 구체적인 지원사업 발굴과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㉔



강민지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minjikang@kiet.re.kr / 044-287-3833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연계방안 연구」
 (공저, 2022)
 「혁신경쟁 평가 등 동태적 시장에서의 경쟁관계」(2022)



박진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전문연구원
 jjiny123@kiet.re.kr / 044-287-3852
 「한국의 기업생태계연구(III)」(공저, 2022)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전략과 정책과제」(공저, 2022)